

story of Tanz

가방에 들어간 발레바

탄프발레바 스토리

지은이 : Ph.D. 이병일



Tanz 

story of Tanz

가방에 들어간 발레바

탄프발레바 스토리

지은이 : Ph.D. 이병일



탄프출판사



서문

탄즈발레바와의 인연은 1982년 문리대 국문과 학부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한 기회에 현대무용을 하게 되면서 시작됐다. 그때 무용을 잘 하려면 무용실에 있는 발레바가 집에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그로부터 12년 뒤, 1994년 발레를 전공한 아내와 무용학원을 개원하며 처음 발레바를 만들었다. 당시 발레바를 판매하는 곳이 없어 직접 발레바를 만들었다. 그러던 중 2006년, 발레바 전문 제작회사 (주)탄즈를 설립하고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2010년 부터 2019년 까지 매년, 영국 국제 무용박람회 런던무브 잇에 탄즈발레바를 출품해 세계 무용인들에게 탄즈발레바를 소개하며 탄즈 브랜드 가치를 드높였다.

지난 15년 간 다양한 발레바가 만들어졌다. 탄즈 연구실엔 최근 만든 발레바와 구형 발레바들이 놓여있다. 요즘도 가끔 무용개인 연습실을 겸한 탄즈 연구실 한 칸에서 바클래스를 한다. 오늘은 파리오페리발레단의 바 클래스를 따라했다. 유튜브속 파리오페라 발레단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 이제 막 지나갔다.

국문학도로, 무용인으로 그리고 행정학도로 남다른 삶의 여정을 보내면서 늘 무용이 함께 했다. 모쪼록 이 글을 읽는 많은 분들이 무용에 관심을 갖게 되는 기회가 생기길 기대한다.

무용 덕분에 몸과 자세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을 갖게 되면서 건강한 장년을 보내고 있다. 앞으로의 시간도 가능한 한 규칙적으로 무용 수업을 하며 지내길 희망한다.

Balletbarre Maker,

이병일 (Lee Byung Ill) 약력

1977	부산 천마국민학교
1979	부산 토성중학교(현 경남중학교)
1981	부산 경남고등학교
1986	경희대학교 문리대 국문학 학사
1984~	서울현대무용단 단원
1987~1992	MBC 무용단 단원
1992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체육대학 현대무용전공 석사
1992	우리들병원 건강문화교실 실장 역임
1994~2002	새암무용학원 운영
2002~	L Ballet단 단원
2011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 박사
2019	목공기능사



무용의 길로 안내한 경희대 무용과 81학번 친구들,
박명숙 교수님, 무용을 가르쳐 준 스승과 동료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아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목차

제 1 장

1. 탄짚발레바	15
가. 나사산 발레바(1994~, 1세대탄짚발레바)	16
나. 용접 발레바	19
다. CNC모듈 발레바	38

제 2 장

2. 세계 시장 개척	53
가. 일본 (2003 ~ 2013)	54
나. 노르웨이 (2009)	64
다. 영국	68
라. 프랑스 (2018)	75

제 3 장

3. Beyond	79
가. Let's Ballet	81
나. DesignTanz	82
다. TanzMac	82

목차

제 4 장

4. 맺음말	85
---------------------	----

제 5 장

5. 부록

가. MOVEIT 10년 기간 중 만난 사람들	89
나. 영국 런던 MOVEIT 2010년-2019년 사진 자료	97

제1장

탄프발레바



좀 더 무용을 잘 하려면
무용실에 있는 발레나가
집에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1982년도 대학교 2학년

국내 발레바의 시작

발레수업 중 손으로 잡거나 발을 올려놓고 바엑서사이즈라고 하는 발레동작연습에 사용하는 무용 연습 장비가 발레바다. 탄쑈발레바는 주식회사탄쑈가 생산한 발레바에 붙인 상품명이다.

탄쑈발레바가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기 까지 제작 방식에 크게 세 번의 변화과정이 있었다.

첫번째 발레바는 수도파이프에 나사산을 낸 손잡이부와 다리 부분을 연결해 발레바 형태를 만들었다. 두 번 째는 나사산 대신 용접으로 발레바 형태를 만들었다. 세 번 째는 용접 대신 연결 부분에 정밀한 CNC 가공 모듈을 끼워 조립해 발레바 형태를 만들었다.

나사산연결 방식에서 용접 방식으로, 용접 방식에서 CNC가공 모듈 끼움방식으로 탄쑈발레바 제작방식은 변했다.

탄쑈발레바 제작방식은 나사산연결 방식에서 용접 방식으로, 용접 방식에서 CNC가공모듈 방식으로 변했다.

2021년 10월 현재, 네이버에서 ‘발레바’란 검색어를 입력하면 발레바 판매업체를 여러개 볼 수 있다. 그 중 세 개의 회사는 탄쑈에 재직했거나 하청업체였던 사람들이 만든 회사다.

구글에서 ‘발레바’를 검색하면 그야말로 여러 종류의 발레바를 볼 수 있다. 2000년 대 이전만 하더라도 한국시장에서는 구할 수 없던 상품, 발레바는 이제 누구라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 됐다.

나사산 발레바

1994~, 1세대 탄썬발레바

1994년도 4월 경 발레를 전공한 아내와 무용학원을 하게 되면서 발레바가 필요한데 파는 곳이 없어 직접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발레바를 만들까 하고 고민하다, 1991년 무용연수차 방문했던 미국 뉴욕 데이비드 하워드 스쿨 발레 수업 때 사용했던 발레바의 형태가 떠올랐다. 기억해보니 뉴욕 데이비드하워드 발레스쿨의 당시 발레바는 수도파이프와 수도파이프 연결용 밸브가 결합된 형태였다. (지금 막 구글링을 해보니 데이비드 하워드는 2013년도에 사망한 것으로 기록이 나온다. 격세지감이다.)

기억을 살려 근처 수도파이프 판매하는 곳에 찾아가 필요한 길이로 자르고 나사산을 낸 후 연결해 발레바를 만들었다.

파이프 표면에 흰색 스프레이를 뿌리고 두 어 시간 말린 후 조립해 사용했다. 이것이 국내 최초의 탄썬발레바다.

당시 이 발레바를 스무개 만들어 수강생들에게 35,000원씩에 판매했다. 의외로 발레바를 필요로 하는 수강생이 많아 금방 팔렸다.

1) 1991년 3월 경 뉴욕 앨빈에일리 스쿨, 마사그래함 스쿨, 데이비드 하워드 스쿨 등에서 연수했다. 당시 뉴욕 시티 발레단 단원들이 발레마스터티체인 데이비드 하워드 수업을 받았다. 당시 데이비드 하워드 스쿨의 연습용 발레바가 파이프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림 1] 나사산을 낸 파이프와 연결용 밸브



[그림 2] 백색 스프레이 도장

[표 1] 나사산 방식 발레바 특성표 (1세대 탄프발레바)

소재	수도용 파이프 (지름 38mm) 7조각 연결모듈 (엘보밸브6ea 티밸브 2ea)
종류	일체형 1단
특징	분리가 불가능한 일체형 발레바 스프레이 도장, 전체형태에 파이프 두께가 동일한 38mm 파이프 사용
구조	다리부와 손잡이부 일체형
별칭	자작발레바, 수도파이프 발레바



[그림 3] 자작 발레바

용접 발레바

수도파이프와 수도파이프용 연결모듈을 사용해 다리 형태를 이어 만든 나사산 발레바와 달리, 용접 발레바는 다리 부분을 아랫다리부와 윗다리부로 나누고 각각 서로 다른 지름, 즉 한쪽이 다른 한 쪽에 끼워지도록 지름이 크고 작은 두 가지 파이프를 사용했다.

작은 지름의 파이프를 사용한 윗다리부에 세 개의 볼트 구멍을 내고 지름이 큰 아랫다리부에 노브볼트를 끼워 조일 수 있게 만들었다. 용접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제작방식이었다. 이렇게 해 무용수가 자신의 키에 적합한 높이에 맞춰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최초의 높이 조절 발레바가 탄생했다. 게다가 손잡이부와 다리부 등 조립과 분해가 편리한 조립식 발레바이기도 했다.



[그림 4] 2세대 탄츠파레바 손잡이부, 윗다리부
(높이조절구멍 세 개), 아랫다리부(높이조절용 노브볼트)

1. 직선형 용접 발레바

1998~, 2세대 탄썬발레바

수도파이프로 만든 첫 번째 발레바가 예상보다 빨리 팔리게 되면서 좀더 근사하고 전문적인 발레바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찾게 됐다. 그러던 중 학원 근처 용접가게를 보고 들어가 그곳 사장에게 발레바를 설명한 후 제작에 들어갔다.

당시 용접가게에서 100개는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 1단과 2단 제품, 총 100개의 발레바를 만들었다. 무려 백 개라니,, 부담이 됐지만 그래야 만들어준다고 하고, 한 번 만들어보자는 패기로 발레바 100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2세대 탄썬 발레바 제작이 시작됐다.



[그림 5] 2세대 탄짚발레바
: 바닥과 닿는 아랫다리부에 고무파이프를 잘라 끼워 무용실 바닥에 흠이 가지 않도록 함



[그림 6] 2세대 탄짚 발레바 - 2단(맨앞) 과 1단(뒤 세 개 제품)

[표 2] 직선형 용접 발레바 특성표 (2세대 탄썬발레바)

소재	철파이프 (지름 43mm, 지름 38mm) 고무 파이프 (바닥 긁힘 방지용) 노브볼트, 너트
종류	1단 발레바 2단 발레바
특징	용접 조립과 분해가 용이 높이조절가능 분체도장 3단 높이조절이 가능한 조립식 발레바
구조	아랫다리부(높이조절노브구멍) 2ea 윗다리부 2ea 손잡이부 1ea
별칭	용접바

1) 홈페이지 tanz.co.kr를 통한 홍보 판매

인터넷 홈페이지로 2세대 발레바를 홍보했다. 당시 시장에는 발레바가 상품화 되지 않아 경쟁사가 없었고, 홈페이지 홍보 덕분에 100개가 금방 팔렸다.

2) 컴프레인과 꿈

직선형 용접 발레바를 구매한 고객 중엔 국립발레단 단원이 있었다. 직선형 용접 발레바를 받은 국립발레단 단원 진**은 이게 무슨 발레바냐며 크게 불평했다. 당시에 발레바에 대한 표준이 없었기에 다른 사람들로 부터는 불평을 들어보지 못했다. 더구나 1단과 2단으로 된 조립식, 높이조절식 발레바를 불평하다니...

한동안 발레바 모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으로 빠져 있었는데 어느날 거짓말 처럼 꿈에 다리 모양이 갈매기처럼 생긴 라운드형 발레바 모습이 보였다.

꿈에 본 형태를 본따 다리모양을 갈매기처럼 라운드 모양으로 벤딩하였고 이를 제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제품이 곡선형 용접 발레바다. 이 발레바는 2021년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탄츠프발레바의 표준 형태로 자리잡았다. 아랫 부분에 두꺼운 파이프를 사용했던 용접식 발레바와 달리 아래 부분에 얇은 파이프를 사용한 라운드형의 이 발레바는, 그 모습이 발레작품 돈키호테에서의 검은 옷을 입은 남성 무용수가 플르베업 동작을 하고 시작하는 독무를 떠올렸다. 그래서 제품명을 돈키호테라 이름지었다.

2. 곡선형 용접 발레바

2002~, 3세대 탄츠허발레바

곡선형 용접 발레바는 전체 모양이 나사산 발레바와 유사한 곡선형태다. 하지만 이 형태의 곡선은 125밀리미터 R값을 적용해 나사산 발레바의 연결부에 사용된 모듈의 곡선 R값과는 큰 차이가 있다. 직선형 용접 발레바를 구입한 후 이게 무슨 발레바냐며 불평했던 국립무용단 단원 진**에게 이 곡선형 용접 발레바를 보여줬다. 더 이상 불평은 없었다.



[그림 7] 3세대 탄짚발레바 - 검정색상 곡선형 용접 발레바

[표 3] 곡선형 용접 발레바 특성표 (3세대 탄짚발레바)

소재	일반 파이프 (지름 43mm, 지름 48mm) 원목 실리콘 캡 노브볼트
종류	1단 발레바 2단 발레바
특징	용접 파이프 벤딩 분체도장 원목손잡이 흑색, 백색 이중 칼라 7단 높이 조절 특허 취득(디자인등록, 실용신안등록)
구조	아랫다리부 2ea(높이조절 구멍 7 개) 윗다리부(높이조절노브구멍) 2ea 손잡이부
별칭	돈키호테 - 검정색의 경우 마치 발레 작품 돈키호테에 출연하는 남성 무용수의 선 자세를 연상케 해 돈키호테라는 별칭을 붙였다.

1) 다리부의 변화

다리부의 갈매기 같은 곡선 디자인은 향후 개발된 모든 탄츄발레바에 적용돼 탄츄발레바의 특징적인 모습으로 자리잡았다.

발레바 구조는 직선형 발레바에 적용했던 것과 유사하게 다리부를 두 부분으로 나눠 윗다리부와 아랫다리부를 연결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하지만 직선형 용접 발레바는 아랫다리부에 윗다리부를 끼우는 방식이었는데 반해, 이번 발레바는 아랫다리부를 윗다리부에 끼우는 방식을 취했다. 이로 인해 아랫다리부와 윗다리부를 연결하는 노브볼트의 위치가 아랫다리부에서 윗다리부로 바뀌었다.



[그림 8] 3세대 탄츄발레바 -
아랫다리부, 윗다리부, 손잡이부(사진 왼쪽에서 오른쪽방향)

높이 조절 구멍도 직선형 용접발레바의 경우 세 개에서 일곱 개로 네 개를 더 뚫어 높이조절이 3단계에서 7단계로 가능한 좀 더 세밀한 제품으로 발전했다.

2) 실리콘 캡

직선형 용접 발레바는 고무파이프를 잘라 만들었지만 곡선형 용접 발레바는 무용실 바닥과 닿는 아랫다리부에 긁힘을 방지하는 실리콘 캡을 별도로 제작하고 표면에 TanzBarre 로고와 홈페이지 주소 tanz.co.kr를 표기했다.



[그림 9] 로고와 홈페이지 주소가 새겨진 실리콘 캡

3) 재질과 색상

직선형 용접 발레바는 스틸 손잡이만 사용했었다. 3세대 부터 나무 손잡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나무 손잡이를 추가했다.

색상도 흰색에 검정색을 더했다. 검정색 발레바는 개인적으로

좀 더 전문적이고 세련된 제품이라는 느낌이 든다.



[그림 10] 나무손잡이를 적용한 3세대 탄쯔발레바

4) 특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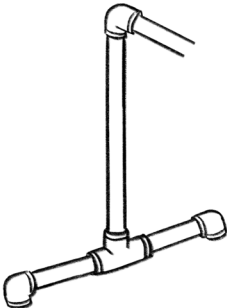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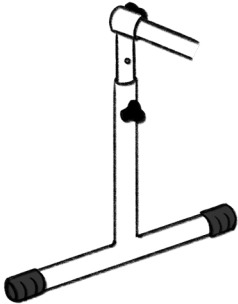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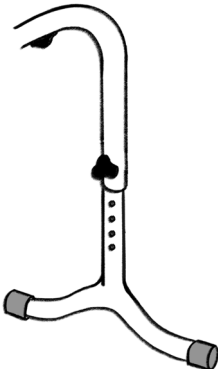
곡선형 용접발레바의 높이 조절 방식과 라운드 형태를 실용신안등록과 디자인등록 부문에 각각 특허 출원했다. 2003년 5월 무용연습용바 실용신안등록(등록제0316207호), 2003년 9월 제 0009517호 의장등록을 취득했다. 특허와 더불어 탄쯔는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5) 다리부의 기능과 형태의 변화

나사산 발레바에서 용접 발레바로 바뀌면서 다리부의 기능과 형태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했다. 용접발레바의 경우 직선형과 곡선형의 차이는 나사산 발레바에서 용접 발레바로 바뀐 것 이상으로 디자인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모든 무용인들이 만족할 만한 탄썸발레바 디자인이 이 시기에 만든 곡선형 용접 발레바에 이르러 구현됐다. 이 발레바는 현재에도 여전히 돈키호테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탄썸의 대표 상품이다.

[표 4] 다리부분의 형태 변화

구분	형태		설명
나사산 발레바			다리부 일체형
용접 발레바	직선형		1.다리부가 윗다리부와 아랫다리부 상하로 구분된다. 2.아랫다리부에 위치한 노브볼트를 조여 높이조절
	곡선형		1.다리부가 윗다리부와 아랫다리부 상하로 구분 2. 윗다리부에 위치한 노브볼트를 조여 높이 조절

[표 5] 직선형 vs 곡선형 발레바 비교

형태	특징
	< 2세대 탄짚발레바 > 전체모양 직선 윗다리부에 높이 조절 구멍 3개(삼 단 높이조절) 아랫다리부에 높 이조절 노브볼트
	< 3세대 탄짚발레바 > 전체모양곡선 윗다리부에 높이 조절 노브볼트 아랫다리부에 높 이조절 구멍 7개 (7단 높이조절)

3. 용접 휴대용 바

2004~, 4세대 탄썬발레바

일반적으로 발레바는 부피가 커 휴대가 힘든 제품이다. 하지만 2세대와 3세대 제품을 조립 형태로 만들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발레바를 여러 부분으로 나눠 각 부속품의 부피를 줄이고 좀 더 가볍고 작게 만들면 휴대할 수 있는 조립식 발레바 제작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었다.

즉시 구상을 시작했고 전용가방과 함께 들고 다닐 수 있는 조립식 발레바가 완성됐다. 이 제품에 쿵쿨프로라는 별칭을 붙였다. 쿵쿨장에 들고다니면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에 붙인 이름이다.



[그림 11] 집에서 4세대 탄짚발레바를 가방에서 꺼내 조립하는 모습



[그림 12] 휴대하여 어디서나 이동 사용이 편리한 4세대 탄짚발레바, 콩쿨프로

[표 6] 용접 휴대용 발레바 특성표

소재	일반 파이프 (지름 38mm) 실리콘캡 노브볼트 전용가방
종류	1단
특징	용접 분체 손잡이재질선택가능(철, 나무) 칼라선택가능(검정색, 흰색) 휴대용 전용가방
구조	아랫다리부2ea 윗다리부(높이조절노브구멍) 2ea 손잡이부
별칭	콩쿨프로 - 이 별칭은 콩쿨을 하는 공연장으로 이동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이라는 의미로 붙인 이름이다.

2004년 경 회사를 그만 둔 직원이 탄쯔발레바와 유사한 발레바를 만들어 파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시작됐다. 하지만 탄쯔발레바에 대한 자신감과 모방유사업체로 생긴 손실을 극복하기 위해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발상을 하게 됐고, 우선 가까운 일본에 발레바를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4. 용접 다리일체형 바 - 칼라바

2005~, 5세대 탄프발레바

일본 발레바 수출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보다 다양한 실험적 발레바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검정색과 흰색 두 가지 색상 외에 노랑, 분홍을 더해 제품명을 ‘칼라바’라고 이름지었다. ‘칼라바’는 다리를 분리하지 않아 높이가 고정된 다리부 일체형 발레바다. 그러다보니 일체형인 다리 부분의 부피가 매우 컸다. 이로 인해 보관과 배송에 어려운 점이 문제로 대두되어 금방 제조를 중단했다.



[그림 13] 칼라, 노랑, 분홍, 흰색을 적용

[표 기] 용접 다리일체형 발레바 특성표

소재	일반 파이프 (지름 43mm, 48mm) 실리콘 캡 노브볼트
종류	1단
특징	용접 분체 다리부 일체형
구조	다리부 손잡이부
별칭	칼라바 - 다양한 색상을 가진 제품이라는 뜻에서 칼라바라는 별칭을 붙였다.

CNC모듈 발레바

1. 바인어백 듀엣 (Barreinabag Duet)

2009~, 6세대 탄썸발레바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시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회사를 그만 둔 직원 두 명이 또 다시 탄썸 발레바와 유사한 발레바를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 인해 다시 한 번 탄썸발레바 판매가 급감했다.

1차 모방업체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늘상 어느 업계에나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어서인지, 탄썸발레바가 취득한 디자인등록 특허와 실용신안등록 특허에도 불구하고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왠지 법이 허술하단 생각이 들었지만 할 수 없었다.



[그림 14] 6세대 탄쯔발레바와 전용가방

발레바 판매 시장에서 불리해진 상황을 극복하려면 보다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고 동시에 일본 수출을 본격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절실한 때였다.

신제품 개발을 위해 용접업체와 상의하던 중 CNC 가공모듈을 적용한 현재의 발레바 제품, 즉 6세대 탄쯔발레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동안 서로 다른 두께의 파이프를 노브볼트로 조여 연결해 조립 하던 방식과 달리 각각의 조립 연결부에 CNC 가공 모듈을 요철 형태로 만들어 끼운 후 연결하고, 이를 무두볼트로 조여 CNC가공 모듈 끼리 발레바 각 부속품인 아랫다리부, 윗다리부, 손잡이 등에 이어 서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자 기성파이프 공차로 인해 불가피했던 조립식 발레바의 흔들림 현상이 사라졌다. 그 뿐 아니라 발레바 연결 시 사용 하던 노브볼트 대신 무두볼트 사용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전혀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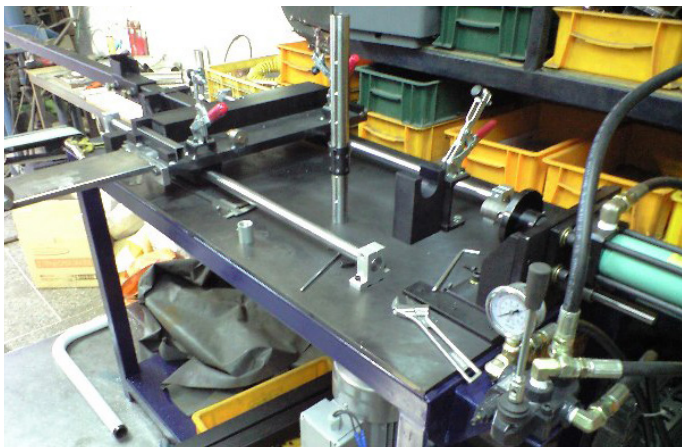
는 매끈한 형태의 발레바가 만들어졌다.

이 발레바야말로 진정한 탄즈 2세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어 Tanz Second Generation이라는 약칭, T2 라고 명명했다. 이로써 보다 새로운 6세대 탄즈발레바가 탄생한 것이다.

훗날 이 제품은 노르웨이 무용 선생 ‘니나’의 소개로 알게 된 영국 무브잇 국제무용박람회 2010년 행사에 최초로 출품하게 된다.

2009년 10월 경, 아직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CNC모듈 발레바가 완성됐다.

CNC모듈 발레바는 용접 대신 발레바 각 연결부에 CNC가공 모듈을 끼우고 이를 연결해 발레바를 조립하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발레바의 부속품, 아랫다리부, 윗다리부, 손잡이부 등에 CNC 모듈을 끼우려면 조립장비가 필요했다. 이 조립장비는 협력업체의 도움으로 만들었다.



[그림 15] CNC 모듈 조립장비

2) 니나(Nina)는 노르웨이 라르빅(Norway Larvic)이라는 지역의 문화센터 무용선생인데 탄즈홈페이지를 보고 탄즈발레바를 구매했던 사람이다.

3) Moveit이라는 명칭의 영국런던 국제무용박람회, 홈페이지 주소, moveitdance.co.uk

그동안 아랫다리부 두 개에 네 장소, 윗다리부 두 개에 네 장소, 손잡이부 한 개에 두 장소, 모두 10개 장소에 적용했던 탄프발레바 용접작업이 6세대 탄프발레바의 경우 아랫다리부 두 개 두 장소로 줄게 됐다. 그러다보니 5세대 발레바 까지 해왔던 용접 관련 협력업체의 작업량이 열 장소에서 두 개 장소로 줄어 발레바 제작 비용이 5분의 1로 줄었다. 게다가 아랫다리부 두 개 장소 용접 단가는 다른 곳 용접에 비해 훨씬 비용이 저렴해 5분의 1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비용이 감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당시 용접협력업체에 발레바 조립기를 많이 만들어 납품하면 되지 않겠냐며 걱정반위로반의 말을 해줬다. 하지만 2013년 경 이러한 상황은 세 번 째 모방업체로 이어졌다. 용접 직선형 발레바(2세대 탄프발레바) 때부터 용접을 도맡아 한 협력업체 수입이 CNC모듈 발레바로 인해 급감하던 그 때, 협력업체는 스스로 발레바 회사를 차려 탄프발레바와 똑같은 수준의 발레바를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다.

CNC모듈 발레바는 그동안 회사를 나간 직원들이 만든 회사로 인해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이를 대응하기 위한 타개책으로 개발을 진행한 것이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용접업체가 이와 같은 일을 벌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

그는 용접 직선형 발레바(2세대 탄프발레바) 때부터 함께한 10년 째 협력업체였다.

참 탈 많은 탄프발레바의 역사 한페이지가 다시 그렇게 쓰여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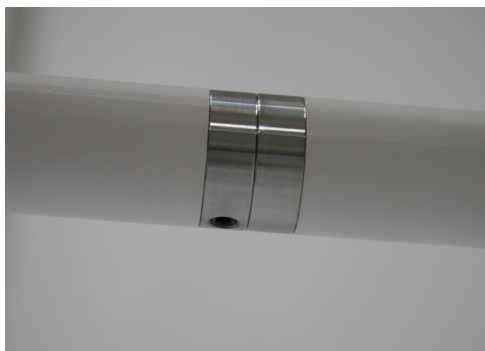
4) 2013년 경 벌어진 일이다. 이 2011년 영국무용박람회 때 영국국립발레단 단원을 통해 6세대 탄프발레바가 소개되면서 일본 수출이 증가하던 시점이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들 그런 일을 겪는다고 쉽게 말하지만 막상 세 번 째 같은 일을 겪고 보니 힘들었다. 당연히 매출은 급감했고 용접업체 사장이 만든 CNC모듈 발레바 짝통으로 인해 일본 수출거래선 마저 넘어가는 사태가 벌어졌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CNC모듈 발레바는 형태의 변화와 발전을 지속하며 2010년에서 2019년, Moveit 영국런던 국제박람회 10년간 출품하며 세계 최고의 발레바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시련을 통한 성장이었다.

1) CNC 모듈

손잡이부: 손잡이부 CNC모듈은 손잡이 소재가 나무 혹은 쇠일 경우를 대비해 두 가지 형태로 제작했다



[그림 16] 쇠 손잡이부에 적용한 CNC모듈



[그림 17] 나무 손잡이부에 적용된 CNC모듈

2) 다리부

높이 조절형과 높이 조절이 되지 않는 높이고정형 각각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CNC모듈을 만들었다.



[그림 18] 높이고정형 뒷다리부, 아랫다리부 CNC모듈.
아랫다리부에 유일하게 용접일이 적용됨.



[그림 19] 높이조절형 뒷다리부, 높이조절부, 아랫다리부 CNC모듈

CNC모듈 연결: 6세대 탄쫄발레바는 연결부가 CNC가공된 모듈을 사용해 0.2~0.4mm 정도 공차로 연결되므로 마치 일체형 제품처럼 흔들림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20] CNC모듈 발레바 손잡이 연결



[그림 21] 6세대 탄썸발레바 원목손잡이형



[그림 22] 6세대 탄썸발레바 스틸손잡이형

[표 8] 6세대 탄짚발레바 특성표

소재	일반 파이프 (지름 38mm, 43mm) CNC 가공 모듈 M1, M21, M22, M3, M4, M4b, M5, M6 등 8가지의 구성 고무링(바닥 긁힘 방지용) 무두볼트 전용가방
종류	조립형1단
특징	용접 CNC 가공, 분체도장
구조	아랫다리부2ea 윗다리부(높이조절노브구멍) 2ea 높이조절봉 2ea 손잡이부
별칭	T2, Barreinabag - ,바인어백(barre in a bag), 이 이름은 2010년 무브잇을 통해 만난 발 레선생 Fyona와 그의 남편 Nick이 붙인 이름이다.

2. 바인어백 솔로 (Barreinabag Solo)

2018~, 7세대 탄짚발레바

제품 Barreinabag-Solo는 2018년 어느날 잘 알고 지내던 무용가의 전화 한통화를 계기로 개발이 시작됐다.

“해외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발레바를 만들었으면 좋겠어.”

Barreinabag-Solo가 나오기 전, 들고 다닐 수 있는 Barreinabag-Duet 제품이 있었지만, 튼튼함을 중점으로 만든 PVC전용가방은 무게가 꽤 나가 장시간 들고 다니기 어렵고 무거웠다

2018년 중반 Barreinabag-Solo는 지금까지 만들었던 제품 중에 가장 진보된 형태를 지닌 제품으로 가방을 포함해도 8.6키로 그램에 불과해 여성무용수도 들 수 있는 정도로 가볍다.

그 외에도 프로무용수가 필요로 하는 발맞사지를 할 수 있는 탄쫘뽏마사저를 포함시켜 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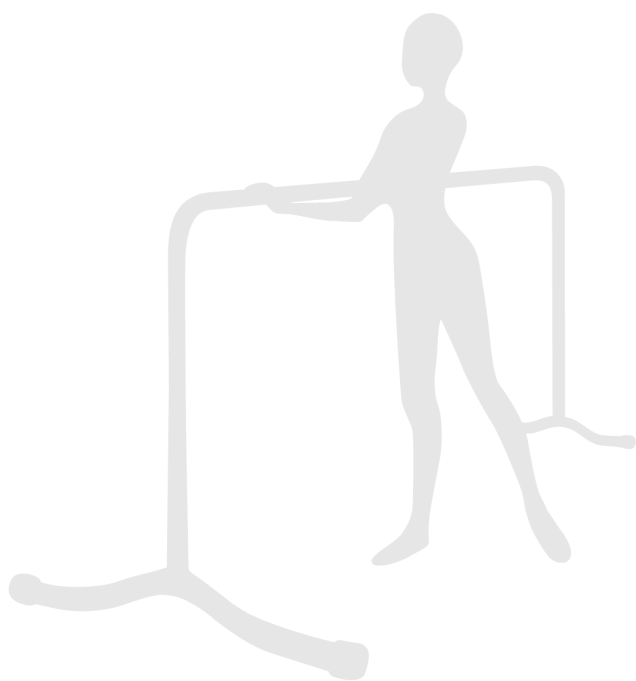
[그림 23] 전용가방에 넣은 Barreinabag-Solo

[표 9] CNC모듈 적용 탄짚발레바 특성표

소재	일반 파이프 (지름 38mm, 43mm) CNC 가공 모듈 M1, M21, M22, M3, M4, M4b, M5, M6 등 8가지의 구성 고무링(바닥 긁힘 방지용) 무두볼트 전용가방
종류	조립형1단
특징	용접 CNC 가공, 분체도장 전용가방 경량화
구조	아랫다리부 2ea 윗다리부(높이조절노브구멍) 2ea 높이조절봉 2ea 손잡이부



[그림 24] 바인어백Solo바, 전용가방, 풋마사저



제2장

세계 시장 개척



2010년 부터 2019년 까지

매년, 영국 국제 무용학원회 런던무용소에

탄저알레바를 소개해 세계 무용인들에게

탄저알레바를 소개하며 브랜드 가치를 드높였다.

일본

전체 인구 대비 0.001%를 넘지 않는 무용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의 한계를 넘어서려면 세계 시장에 문을 두드려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가까운 나라 일본을 우선 목표로 수출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오사카에 무용박람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지인으로부터 듣고 오사카로 향했다. 손에는 4세대 탄뜨발레바가 들려 있었다.



[그림 25] 전용가방에 넣은 4세대 탄뜨발레바

5) 무용학원 경험에 기초한 개인적 추산치

2. 세계 시장 개척 > 일본

1. 오사카

2010 년 경, 터넷 검색으로 오사카에서 유명한 호무라 토모이 발레단을 발견했다. 결레인 줄 알지만 사전 연락 없이 발레단을 방문했다. 이제 막 수업을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오사카에서 열린 무용박람회에 일이 있어 들른 한국 무용수라 소개하고 혹시 외부 인도 클래스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능하다고 해 기쁘고 흥분된 마음으로 준비해 간 연습복을 갈아입고 클래스에 참여했다. 수업이 끝날 즈음에 남자 무용수 한 사람이 한국사람이냐고 물길래 그렇다고 했는데 매우 호의적인 느낌을 받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발레단 수석 무용수 호무라 토모이였다. 이후 오사카에 머무르는 동안 발레단 아침 클래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했다. 나중에 기회가 닿아 들고 간 4세대 탄썬발레바를 발레단원들에게 소개했다. 갖고 간 제품은 호무라토모이에게 선물했다.

당시 K-Drama 겨울연가가 일본인들에게 널리 알려지면서 한국에 대한 일본국민감성은 호감일색이었다. 겨울연가 덕분에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일본시장 개척에 큰 도움이 됐다

훗날 여름방학 때 오사카 호무라 토모이 발레단에 한국 무용학 원생들을 연수보내며 돈독한 관계를 이어갔다.



[그림 26] 호무라토모이발레단 수석 무용수 요시오 호무라
: 한국에서 왔느냐 물었던 그 무용수



[그림 27] 호무라토모이발레단 연습실

他に例を見ないスケールの
3つのスタジオ(計490m²)を誇る

—SINCE 1937—

Homura Tomoi Ballet Company
法村友井バレエ
団 & 学校

入学随時

法村友井バレエ
団 & 学校
☎6771-6475

国道25号線
井田駅
北出口より 北へ徒歩約5分

[그림 28] 지하철 역에 걸린 호무라토모이 발레단 광고



[그림 29] 호무라 토모이 발레단 연습



[그림 30] 호무라토모이발레단 공연시 탄썩발레바를 전시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다.

2. 나고야

고등학교 동창의 소개로 나고야에서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는 효도 다이지로 일본 현지 사장을 소개 받았다. 그는 젊었을 때 올림픽 수영대회에서 메달을 받은 유명한 운동 선수 출신의 사업가였다. 당시 나고야에서 수영장과 운동복 판매 코너를 갖춘 문화센터를 운영중이었다. 탄쯔 발레바를 본 효도 사장은 친절하게도 그가 알고 있던 무용학원 원장을 소개해 주었다. 효도 사장과 함께 나고야 캄파니발레스튜디오를 방문하여 탄쯔발레바를 소개했다. 당시 제품을 본 발레선생은 탄쯔발레바 같은 휴대용 발레바가 없어서인지 매우 놀라워하는 눈치였다. 효도 사장은 탄쯔발레바를 토큐헨즈라고 하는 일본에서 꽤 유명한 수제 제품 전문 백화점에 입점시키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토큐헨즈는 일본 전역에 지점이 있는 매우 유명한 상업시설이었다. 그런데 일이 성사되기 전, 효도 사장이 암으로 별세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다행히 효도 사장의 아들 다이지로와 인연을 계속 이어갔다.



[그림 31] 2004년 11월 23일
 일본 나고야 소재 아트컴파니 발레 스튜디오
 / 바닥에 놓인 4세대 탄썬발레바 공클프로
 / 효도 사장



[그림 32] 일본 수출을 위해 몇 시간 씩 들고 다녔던 4세대 탄짚발레바 공를 프로와 전용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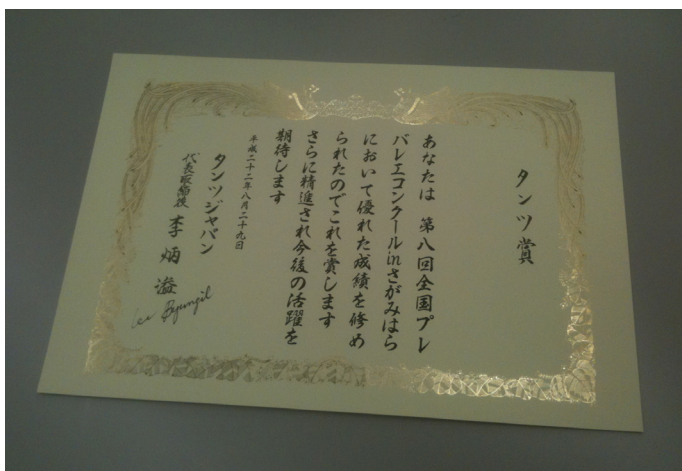
3. 도쿄

자신을 권**이라고 소개한 여성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만났는데 그녀는 한국 여성이었다. 현재 도쿄에 살고 있는데 탄짚발레바를 도쿄에서 팔아보고 싶다고 제안했다. 이를 시작으로 도쿄에서 개최되는 각종 무용 행사에 협찬을 하면서 탄짚 발레바를 소개하고 알리는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그녀를 통해 매년 1억원 내외의 일본 수출이 진행됐다.



[그림 33] 일본 콩쿨 협찬



[그림 34] 일본 콩쿨 탄쯔상 제정 및 수여



[그림 35] 갈라 공연 협찬

노르웨이

2009

노르웨이에 탄프발레바를 알리게 된 것은 순전히 인터넷 홈페이지 덕분이다. 어느날 인터넷에서 탄프홈페이지를 본 노르웨이 발레 선생 니나로부터 연락이 왔다. 당시 인터넷에서 그녀가 본 탄프발레바는 고정설치형 제품이었다. 그녀는 이 제품을 자신이 강사로 있는 닐레스튜디오에 설치하고 싶어했다. 아울러 라르빅에 있는 두르하이에르달 고등학교 무용연습실에도 탄프 고정형 발레바를 설치하겠다고 제안했다. 그 제안은 즉시 실행에 옮겨졌다.

이를 기회로 4세대 탄프발레바 콩쿨프로와 휴대용 발레 매트를 챙겨 노르웨이 방문길에 올랐다.



[그림 36] 여행가방 위에 얹어놓은 탄프발레바와 무용매트 in Norway



[그림 37] 고정바를 설치한 노르웨이 라르빅 닐레 문화센터 입구



[그림 38] 탄츄 고정바를 설치한 닐레 문화센터 내부



[그림 39] 노르웨이 라르빅 닐레 스튜디오 연습실에 설치된 탄썬 고정형 발레바



[그림 40] 신축중이던 두르하이에르달 공립학교

저녁식사를 하던 중 그녀는 무브잇이라는 행사가 영국런던에서 매년 개최되는데 탄쯔발레바를 무브잇에 소개하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해 주었다.

다음해 2010년 곧장 영국 무브잇 국제 무용박람회에 참가했다. 이후 COVID-19 발생 이전해인 2019년 까지 매년 참가해 탄쯔발레바를 세계 무용계에 소개했다.



[그림 41] 노르웨이 라르빅 니나의 집에서 뉴콩쿨프로 발레바를 시연하고 선물함

영국

1. 런던 국제무용박람회 Moveit

2010 ~ 2019

노르웨이 라르빅에 위치한 닐레 문화센터 발레 선생 니나(Nina)로부터 영국 무브잇 국제무용박람회가 매년 열린다는 정보를 듣고 바로 다음 해 2010년, 6세대 탄즈발레바를 무브잇에 출품했다. 당시 관객들의 반응은 한결 같았다. Fantastic, Excellent!

박람회 첫날 오후 즈음 영국 무용 교사 피오나(Fyona)가 부쓰를 찾았다. 이모저모를 살피다 발레바를 구매하고 싶다고 했다. 그렇게 영국에서의 첫 판매가 성사됐다.



[그림 42] 무브잇 로고

행사 마지막 날엔 피오나(Fyona)가 그의 남편 닉(Nick)과 함께 다시 탄즈 부스를 방문해 자신이 구매한 6세대 탄즈발레바가 가방에 들어가는 제품이니 barre in a bag 이라고 하면 어떻겠냐며 조언했다.



[그림 43] 2010년 barre in a bag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피오나(Fyona) 가족

6) 무브잇(Moveit)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적 무용행사로 매년 3월에 개최된다. 홈페이지 moveitdance.co.uk에 자세한 정보가 있다.

2. Barreinabag 상표등록

2010년 영국 박람회を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barre in a bag을 로고로 만드는 동시에 이를 상표 등록했다. 그리고 디자인탄뜨에서 만든 barreinabag로고를 가방에 새겨 2011년 Moveit으로 갔다.



[그림 44] 바인어백 로고



[그림 45] 바인어백 로고가 새겨진 PVC하드케이스 가방



[그림 46] 가방안에 놓인 6세대 탄썬 발레바



[그림 47] 2011년 3월, barreinabag 상표가 표시된 가방을 들고 무브잇 전시장으로 이동 중



[그림 48] barreinabag이라는 상표를 붙여 2011년 무브잇에 참가



[그림 49] 2019년 무브잇에 출품 당시의 Barreinabag-Solo

Covid-19가 발생하기 바로 전해인 2019년, 신제품 7세대 탄츠 발레바 Barreinaba-Solo를 출품했다.

이를 본 전 영국 국립발레단 단원 Daniel이나, 더 바의 Peter, 그리고 Fyona와 Nick 부부 모두 좀 더 작아지고 컴팩트한 Barreinabag-Solo를 보고 대단하다며 칭찬했다. 대부분의 영국 무용관람객들은 언제나 처럼 Fantastic, Excellent라는 찬사로 상품을 대했다.

영국에서 인정받으려면 장시간 꾸준한 노력해야한다고 했다. 2010년에 만난 영국 발레선생 Fyona와 그의 남편 Nick과 친해지면서 들은 얘기다. 그러는 가운데 무브잇에서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ㄱ 더 바(The Barre)-발레바 영국제품 생산 회사 이름

참가 9년 차 쯤 무브잇 관계자들이 탄뜨는 상을 주어야 한다는 말을 했다.

런던 무용박람회에 중국에서는 많은 참가자를 볼 수 있지만 탄뜨처럼 꾸준하게 참가한 아시아 참가자는 없어서 하는 이야기였다.

무브잇 참가 업체는 대부분은 유럽과 미국회사다.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매년 참가했다.

아쉽게도 Covid-19로 2020, 2021년 행사가 연기됐고 2022년도 행사진행이 오미크론으로 인해 불확실한 상황이다. 다시 신제품을 들고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프랑스

파리 국제무용박람회 Let's Dance

2018

2017년 영국런던국제무용박람회를 찾은 프랑스 LetsDance의 매니저인 폴의 초청으로 프랑스파리 국제무용박람회에 2018년 최초로 참가했다.



[그림 50] 프랑스 LetsDance 관람 고객인 무용선생님들



[그림 51] 프랑스 LetsDance 발레 실습에 사용된 탄썬발레바



[그림 52] 프랑스 LetsDance 발레 실습에 사용된 탄썬발레바

제 3 장

Beyond



부피가 커 휴대가 불가능했던 발레방을
 여러 방으로 나눠 부피를 줄이고
 좀 더 가볍고 작게 만들 계획을 즉시 시작했고,
 전용가방과 함께 들고 다닐 수 있는 조립식 발레방이 나왔다.



[그림 53] Balletbarre Maker 이병일

탄프라는 회사명과 바인어백이라는 제품 이름 때문에 간혹 탄프발레바는 수입품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듣곤 한다. 탄프발레바는 한국에서 한국인 무용수가 개발하고 만든 한국산 제품이다.

독일 탄프씨어터 피나바우시의 작품이 한국 현대무용계에 널리 알려졌다. 그러다 보니 현대무용 전공자에게 탄프라는 단어는

뉘앙스가 남다른 단어다. 이런 연유로 회사이름을 탄쯔라고 지었다.

독일어 탄쯔는 영어의 댄스와 동의어다.

1994년 무용학원개원을 기점으로 발레바 제조를 시작해 한국 시장 최초로 발레바를 상품화한 이후 회사는 탄쯔발레바 제조를 넘어 무용관련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Let's Ballet, DesignTanz, TanzMac 등 세 개의 자회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1. LetsBallet.com

발레를 배우면 건강해진다. 하지만 발레는 전문가 영역이라는 편견 탓인지 태권도처럼 일반인 접근이 쉽지 않다. 다행히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면서 문화접근성이 향상되었고 최근 무용에 대한 대중 인식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특히 일반 성인 여성을 위한 발레 수업이 증가하고 있다. LetsBallet.com은 건강에 유익한 무용수업을 보다 많은 일반인들에게 소개하고 보급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다.

2. DesignTanz

무용과 관련된 디자인 작업에 무용학원 로고, 인쇄물, 홈페이지 등이 있다. 그 중 무용학원 홈페이지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초기 구축 비용과 지속적 관리에 따른 부담 때문에 대개 엄두를 내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DesignTanz는 이에 대한 대안과 함께 무용관련 Design업무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TanzMac

무용연습실은 무용수 연습 공간이다. 보통 한시간 반 정도 지속되는 무용 연습 마지막 부분 점프 동작에서 부상을 당할 확률이 높다. 고난이도의 점프 동작을 할 때 신체 충격을 완화해 부상을 방지하는 탄성 마루 구조는 무용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 시설이다.

이 외에도 무용과 관련된 여러 시설과 구조, 소재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사업다각화를 진행중이다.



제 4 장

맺음말



일주일도 가깝게 무용개인연습실을 접한

탄짚연습실 한 편에서 바클래스를 한다.

오늘은 유튜브에 소개된 파크오퍼레이탈레단의 바클래스를 따라했다.

탄짚발레방과 함께한 즐거운 시간이 이제 딱 지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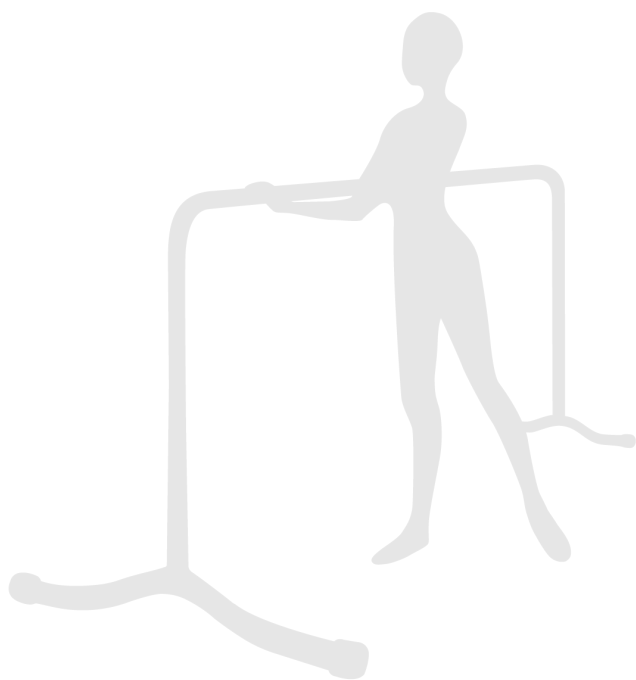
가능하면 매일 유튜브에 소개된 다양한 무용수업동영상을 보고 따라한다. 그러다 틈이 나면 탄쯔스테이션에서 초보자 발레클래스를 듣는다. 힘들지만 행복한 시간이다.

클래스를 하는 동안 여러 생각이 오가고 그러는 가운데 무용과 관련해 그동안 하지 않았던 단상들이 실천을 종용한다. 그것이 회사 업무로 이어진다. 그러니 탄쯔는 무용으로 만들어지고 무용으로 만들어가는 회사다.

무용의 길로 안내한 친구와 무용수업 참여를 기꺼이 허락해 무용인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해 준 은사 박명숙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탄쯔의 모든 것은 무용에서 시작되었다.

무 용 만 세 !



제5장

부록

MOVEIT 10년 기간 중 만난 사람들

탄짚의 MOVEIT 내용 더 보기

탄짚 홈페이지 > 사진으로 만나는 LONDON MOVEIT

영국 국제 무용박람회 무브잇에 10년간 참여하면서 수 년에 걸쳐 서너 번 이상 꾸준히 만나는 사람들이 생겼다. 일 년에 한 번이긴 해도 매년 만나 가까워진 사람들을 소개한다.

1. Nick과 Fyona, 바이올리니스트와 발레선생

Nick과 Fyona부부는 탄짚발레바에 barreinabag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예술인 부부다. Nick은 바이올리니스트 이면서 연주 지휘자다. Fyona는 발레선생님이다. 부부의 초대로 London Wataloo에서 기차로 한 시간 가량 거리인 Farnham에서 이들을 보내기도 했다. 영국 런던 집을 팔고 인구 4만명 정도의 Farnham 전원주택으로 이사했다고 한다.



[그림 54] 2010년부터 알게 된 Nick과 Fyona



[그림 55] Fyona의 집에 초대 받아 시간을 보내는 모습

2. Donna, 무브잇 행사 매니저

2020년 10월 Donna로부터 메일이 왔다. Covid-19 때문에 2020년에 이어 내년 2021 전시회가 어떻게 될지 미정이고 이 때문에 다시 소식을 전하겠다고 한다.

2010년 미혼이었던 Moveit 매니저 Donna는 결혼해 아이엄마가 되었다. 2018년 행사 때 그의 남편 그리고 애기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



[그림 56] 2010년에 만난 무브잇 매니저 도너와 가족

3. Daniel, 영국국립발레단

2011년 처음 만났을 때 미혼이었으나 이제 두 아이의 아빠가 된 다니엘 전 영국국립발레단 단원. 그의 소개로 The Agony and the Ecstasy의 저자이자 ENB 솔리스트였던 Daria Klimentova로부터 탄쑈발레바의 품평을 받기도 했다. 이 품평 덕분에 탄쑈발레바는 일본에서 보다 더 잘 팔리는 상품이 됐다.

그의 아내 Kei역시 영국국립 발레단단원이다. 최근 페이스북으로 안부를 전하고 있다.



[그림 57] 영국국립발레단 단원 다니엘 가족



[그림 58] 다리아클리멘토바, ENB단원

“I first tried the Barreinabag before a stage rehearsals, it's very stable and not a wobbly barre. The Barre gives you support and you can feel the centre of your body very easily when you are doing your exercise. I managed to put myself on balance so well that in rehearsal I finished my fouettes with 4 pirouettes. I love the fact you can put the barre in a bag and store it easily when you don't use it. Barreinabag is simply amazing.”

— Daria Klimentova, Senior Principal Dancer, English National Ballet —



[그림 59] 카이, ENB단원

“I love Barreinabag, it's steady but light. The quality is beautiful, and this will help me to exercise anywhere I want. ”

— Kei Akahoshi, Junior Soloist, English National Ballet —

4. Paul, 프랑스 Let's Dance 창립자

2017년 영국 Moveit 전시회장 탄즈 부쓰를 찾아온 전직 무용수이자 France 무용박람회 Letsdance의 창립자인 Paul은 자신의 전시회에 탄즈발레바를 소개하고 싶다고 했다. 이 사진은 2018년 프랑스 파리 LetsDance 행사장에서 만나 찍은 사진이다.



[그림 60] 프랑스 전시회 창립자 Paul

5. The barre⁹ Peter

Peter의 아내는 발레선생님이다. 그는 2013년부터 2019년 까지 매년 탄쫘발레마 부쓰 맞은편에서 자신이 만든 발레바를 판매하고 있다.



[그림 61] 영국 The Barre 의 Peter

영국 런던 MOVEIT

2010년2019년 사진 자료

1. 2010년



[그림 62] 발레바 제품 설명



[그림 63] 탄짚발레바 부스를 방문한 소녀들



[그림 64] 캔싱턴올림피아 무브잇 전시회장 내부 전경

2. 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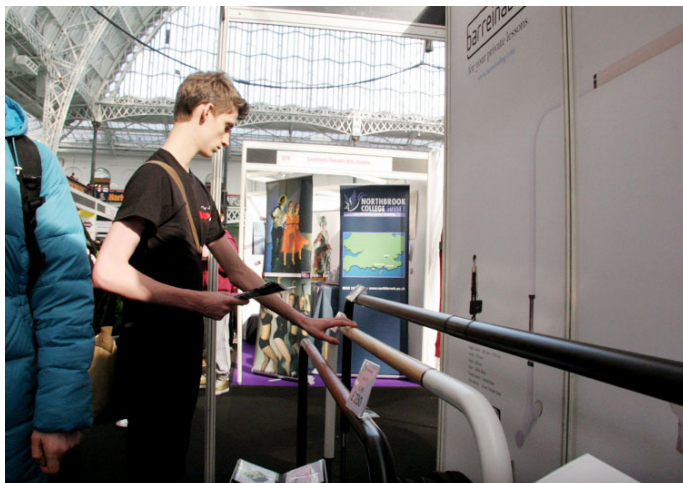


[그림 65] 영국국립발레단 단원 다니엘과 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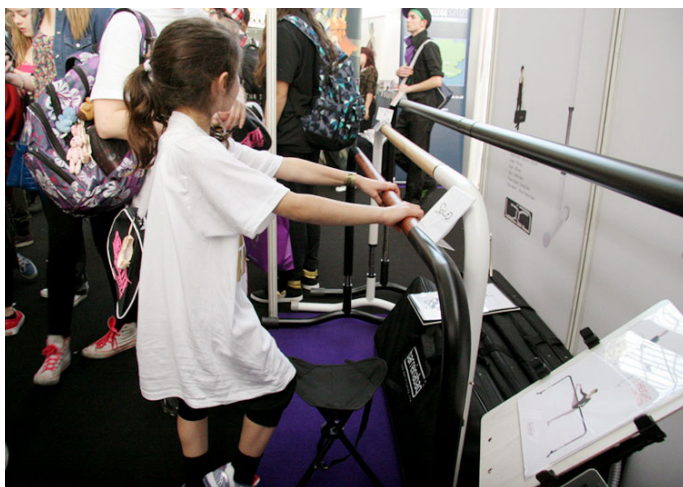


[그림 66] 영국국립발레단 단원 다니엘과 카이

3. 2012년 ~ 2013년 MOVE IT



[그림 67] 발레바를 보는 관객



[그림 68] 발레바에 관심을 보이는 아이



[그림 69] 고객과 함께 발레동작



[그림 70] 탄짚발레바를 사용하는 모녀



[그림 71] 전시장 내부 전경



[그림 72] 부쓰를 찾은 어린 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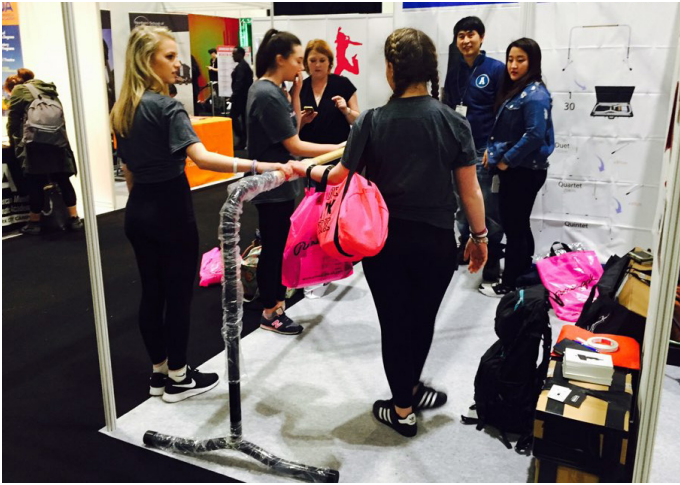
4. 2014년 ~ 2019년 MOVE IT



[그림 73] 탄즈발레바에 관심을 보이는 고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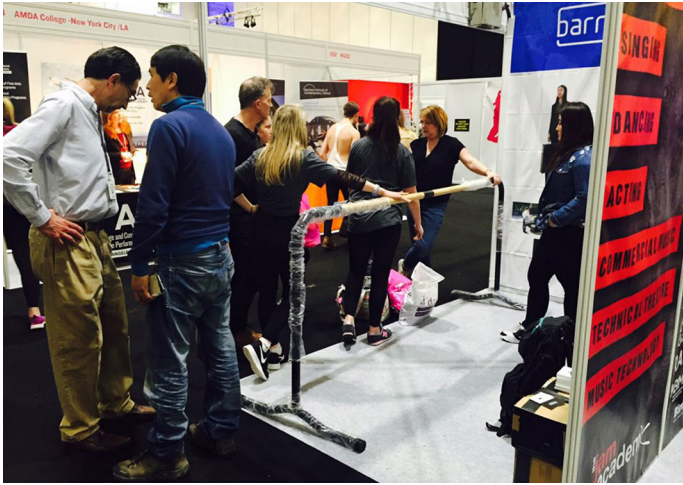
[그림 74] 발레바에 관심을 보이는 고객



[그림 75] 발레바에 관심을 보이는 고객



[그림 76] 탄쯔발레바에 관심을 보이는 고객



[그림 77] 고객과의 상담



[그림 78] 발레바를 사용하는 고객



[그림 79] 발레바 구매를 희망하는 고객



[그림 80] 영국국립발레단 단원 다니엘과 두 자녀



표차례

[표 1] 나사산 방식 발레바 특성표 (1세대 탄츠헤발레바) 17

[표 2] 직선형 용접 발레바 특성표 (2세대 탄츠헤발레바) 22

[표 3] 곡선형 용접 발레바 특성표 (3세대 탄츠헤발레바) 25

[표 4] 다리부분의 형태 변화 30

[표 5] 직선형 vs 곡선형 발레바 비교 31

[표 6] 용접 휴대용 발레바 특성표 34

[표 7] 용접 다리일체형 발레바 특성표 37

[표 8] 6세대 탄츠헤발레바 특성표 47

[표 9] CNC모듈 적용 탄츠헤발레바 특성표 49

그림 차례

[그림 1] 나사산을 낸 파이프와 연결용 밸브 17

[그림 2] 백색 스프레이 도장 17

[그림 3] 자작 발레바 18

[그림 4] 2세대 탄츠헤발레바 손잡이부, 윗다리부(높이조절구멍 세 개), 아랫다리부(높이조절용 노브볼트) 19

[그림 5] 2세대 탄츠헤발레바: 바닥과 닿는 아랫다리부에 고무파이프를 잘라 끼워 무릎실 바닥에 흡이 가지 않도록 함 21

[그림 6] 2세대 탄츠헤발레바 - 2단(맨앞) 과 1단(뒤 세 개 제품) 21

[그림 7] 검정색상 곡선형 용접 발레바 25

[그림 8] 3세대 탄츠헤발레바 3세대 탄츠헤발레바: 아랫다리부, 윗다리부, 손잡이부(사진 왼쪽에서 오른쪽방향) 26

[그림 9] 로고와 홈페이지 주소가 새겨진 실리콘 캡 27

[그림 10] 나무손잡이를 적용한 3세대 탄츠헤발레바 28

[그림 11] 집에서 4세대 탄츠헤발레바를 가방에서 꺼내 조립하는 모습 33

[그림 12] 휴대하여 어디서나 이동 사용이 편리한 4세대 탄츠헤발레바, 쿡쿨프로 33

[그림 13] 칼라, 노랑, 분홍, 흰색을 적용 37

[그림 14] 6세대 탄츠헤발레바와 전용가방 39

[그림 15] CNC 모듈 조립장비 40

[그림 16] 쇠 손잡이부에 적용한 CNC모듈 43

[그림 17] 나무 손잡이부에 적용된 CNC모듈 43

[그림 18] 높이조정형 윗다리부, 아랫다리부 CNC모듈. 아랫다리부에 유일하게 용접일이 적용됨. 44

[그림 19] 높이조절형 윗다리부, 높이조절부, 아랫다리부 CNC모듈 44

[그림 20] CNC모듈 발레바 손잡이 연결 45

[그림 21] 6세대 탄츠헤발레바 원목손잡이형 46

[그림 22] 6세대 탄츠헤발레바 스틸손잡이형 46

- [그림 23] 전용가방에 넣은 Barreinabag-Solo 49
- [그림 24] 바인어백Solo바, 전용가방, 풋마사저 50
- [그림 25] 전용가방에 넣은 4세대 탄츠발레바 54
- [그림 26] 호무라토모이발레단 수석 무용수 요시오 호무라 : 한국에서 왔느냐 물었던 그 무용수 56
- [그림 27] 호무라토모이발레단 연습실 56
- [그림 28] 지하철 역에 걸린 호무라토모이 발레단 광고 57
- [그림 29] 호무라 토모이 발레단 연수 58
- [그림 30] 호무라토모이발레단 공연시 탄츠발레바를 전시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다. 58
- [그림 31] 2004년 11월 23일: 일본 나고야 소재 아트캄파니 발레 스튜디오/ 바닥에 놓인 4세대 탄츠발레바 콩쿨프로/ 효도 사장 60
- [그림 32] 일본 수출을 위해 몇 시간 켜 들고 다녔던 4세대 탄츠발레바 콩쿨 프로와 전용가방 61
- [그림 33] 일본 콩쿨 협찬 62
- [그림 34] 일본 콩쿨 탄츠상 제정 및 수여 62
- [그림 35] 갈라 공연 협찬 63
- [그림 36] 여행가방 위에 얹어놓은 탄츠발레바와 무용매트 in Norway 64
- [그림 37] 고정바를 설치한 노르웨이 라르빅 닐레 문화센터 입구 65
- [그림 38] 탄츠 고정바를 설치한 닐레 문화센터 내부 65
- [그림 39] 노르웨이 라르빅 닐레 스튜디오 연습실에 설치된 탄츠 고정형 발레바 66
- [그림 40] 신축중이던 투르하이에르달 공립학교 66
- [그림 41] 노르웨이 라르빅 니나의 집에서 뉴욕콩쿨로 발레바를 시연하고 선물함 67
- [그림 42] 무브잇 로고 68
- [그림 43] 2010년 barre in a bag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피오나(Fyona) 가족 69
- [그림 44] 바인어백 로고 70
- [그림 45] 바인어백 로고가 새겨진 PVC하드케이스 가방 71
- [그림 46] 가방안에 놓인 6세대 탄츠 발레바 71
- [그림 47] 2011년 3월, barreinabag 상표가 표시된 가방을 들고 무브잇 전시장으로 이동 중 72
- [그림 48] barreinabag이라는 상표를 붙여 2011년 무브잇에 참가 72
- [그림 49] 2019년 무브잇에 출품 당시의 Barreinabag-Solo 73
- [그림 50] 프랑스 LetsDance 관람 객객인 무용선생님들 75
- [그림 51] 프랑스 LetsDance 발레 실습에 사용된 탄츠발레바 76
- [그림 52] 프랑스 LetsDance 발레 실습에 사용된 탄츠발레바 76
- [그림 53] Balletbarre Maker 이병일 80
- [그림 54] 2010년부터 알게 된 Nick과 Fyona 90
- [그림 55] Fyona의 집에 초대 받아 시간을 보내는 모습 90
- [그림 56] 2010년에 만난 무브잇 매니저 도너 가족 91
- [그림 57] 영국국립발레단 단원 다니엘 가족 92
- [그림 58] 다리아클리멘토바, ENB단원 93
- [그림 59] 카이, ENB단원 94

- [그림 60] 프랑스 전시회 창립자 Paul 95
- [그림 61] 영국 The Barre 의 Peter 96
- [그림 62] 발레바 제품 설명 97
- [그림 63] 탄쑈발레바 부스를 방문한 소녀들 98
- [그림 64] 켄싱턴올림픽아 무브잇 전시회장 내부 전경 98
- [그림 65] 영국국립발레단 단원 다니엘과 카이 99
- [그림 66] 영국국립발레단 단원 다니엘과 카이 99
- [그림 67] 발레바를 보는 관객 100
- [그림 68] 발레바에 관심을 보이는 아이 100
- [그림 69] 고객과 함께 발레동작 101
- [그림 70] 탄쑈발레바를 사용하는 모녀 101
- [그림 71] 전시장 내부 전경 102
- [그림 72] 부스를 찾은 어린 소년 103
- [그림 73] 탄쑈발레바에 관심을 보이는 고객 104
- [그림 74] 발레바에 관심을 보이는 고객 104
- [그림 75] 발레바에 관심을 보이는 고객 105
- [그림 76] 탄쑈발레바에 관심을 보이는 고객 105
- [그림 77] 고객과의 상담 106
- [그림 78] 발레바를 사용하는 고객 106
- [그림 79] 발레바 구매를 희망하는 고객 107
- [그림 80] 영국국립발레단 단원 다니엘과 두 자녀 108

story of Tanz

가방에 들어간 발레바

탄뜨발레바 스토리

초판 발행 2022년 1월 31일

지은이 이병일

책임편집 이명도

디자인 이명도

펴낸곳 탄뜨

출판등록 2006년 2월 14일 제386-3880000251002006000011호

주소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272번길 18(중동)

전화 032-651-3471(기획편집) 1833-3401(마케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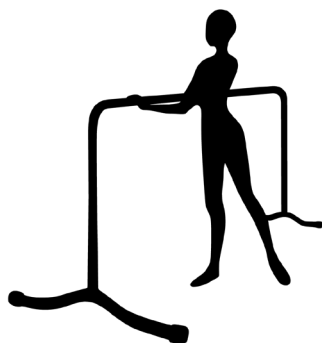
팩스 032-651-3473 이메일 cs@tanz.co.kr

홈페이지 www.tan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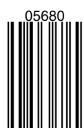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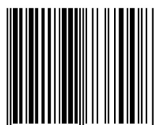
ISBN 979-11-977370-0-8 (PDF)

-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
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05680)



값 14,000원



9 791197 737008

ISBN 979-11-977370-0-8 (PDF)